차가운 이성·루디의 의지·사람에 대한 사랑

◇ 대학 신입생들에게 주는 첫번째 강의

이 근 수
〈점경대교수 회계〉

"바다보면 지상에서 나무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늘 하늘빛에 젖어서 허공에 팔을 들고
촛불인듯 지상을 밝혀준다
땅속 깊이 발을 묻고 하늘 구석을 쓸고 있다"
이성선 〈아름다운 사람〉중에서

회계학 선생인 내가 신입생으로서 맞는 여러분들의 첫 강의 시간에 이런 시를 낭송함으로써 강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뜻밖이라면 그것은 학과목과는 엉뚱하게 시가 강단에 등장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이란 시의 특별한 제목 때문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나도 또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대학생활을 포함한 여러분의 앞날에는 이러한 뜻밖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브레이스가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했던 것은 이미 1970년대의 일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1980년대를 '충격의 시대'로 표현했고 2천년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이제 유행어가 되다시피한 '마이클 햄머'가 말하는 '리엔지니어링'의 시대 혹은 존 네이스빗츠의 말대로 '대변혁(Megatrends)'의 시대로 표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대학시절이란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도상훈련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도처에 산재해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강의가 먼저주는 첫 번째 화두(話頭)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기 전까지의 생활을 우선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얼리게 될 생활과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도 타율과 자율, 폐쇄와 개방, 집단과 개인, 특수성과 보편성—이렇게 대립적인 어휘들로 엇비슷하게나마도 표현할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집단화된 중등교육 과정에서 대학입시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타율에 의해 운전되어 왔다면, 대학은 분명히 새로운 목표와 질서하에서 나를 발견하는 열린 장소로서 다가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려라고 기대하고 있던 전문적 지식에 앞서 대학에서 나 스스로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내고,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인 명제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작년 한 해동안 교환교수로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 머물면서 귀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그들의 국어와 과학교육이었습니다. 중학교 국어시간엔 매주마다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자기 주장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글을 한 학기 내내 쓰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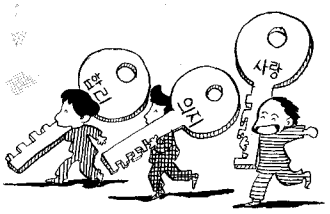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세가지 이유를 들고 각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나 설명 등을 또 세가지씩 열거하도록 하는 다소 기계적인 형식을 요구했지만 다양한 관심과 논리적 사고를 훈련시키는 교육방법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과학시간에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생이 한 학기 내내 씨름하는 것을 관찰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받지 못했던 이러한 기본적인 훈련은 늦었지만 대학에서라도 담당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먼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회개혁가이며 문화비평가였던 러스킨(John Ruskin : 1819—1900)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백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천명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더욱 소수일 뿐이다.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것은 예술이건 종교이건 학문에서건 하나같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엔 작년 말부터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사람들을 바꾸고 교통법규위반이나 각종 범죄들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극장표를 사는데서 세치기를 하면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언론에서는 이러한 법령을 바꾸는데 수반되는 제도나 시설에 대한 준비는 없이 언제나 국민의식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만을 역설하곤 합니다. 홍보자료에는 꼭 미국사람들이 줄 잘 서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곤 하지요. 그러나 미국인들이 줄 잘서는 이유는 그들의 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인으로서 느껴야 될 사명의 하나가 바로 사회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고안해 내며 이 제도를 뿌리박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들을 하나씩 덜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대학은 새로운 목표와 질서하의 열린 장소
의식개혁 통한 지속적인 자기계발 필요

사태를 직시할 수 있는 밝은 눈과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명석한 머리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문제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의지랍니다. "뜻있는 자 이루고 노력하는 자 승리한다."란 말은 우리 학교의 표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Rudy)'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루디는 서카고 근교의 시골 동네에서 가난한 공장노동자의 평범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가친척중에 누구도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어릴적부터 미식축구의 강자이며 사립의 명문인 노틀담 대학의 풋볼선수가 되겠다는 소중한 꿈을 키웠습니다. 빈약한 체격, 가난한 집안사정, 평범한 히 1천불을 저축할 수 있었고 그의 꿈을 알아주던 단 하나의 친구가 사고로 죽자 결연히 꿈을 찾아 집을 떠납니다. 대학의 입학허가를 얻기 위해 예비학교에서 2년. 학교의 창고에서 몰래 숨어 자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집념은 결국 노틀댐 대학의 입학허가를 얻어냈고 풋볼팀의 후보선수로 들어갑니다. 불굴의 투혼과 축구에 대한 불꽃같은 집념. 쉬지 않는 연습으로 끊임없이 기량을 연마하여 그는 팀의 마스코트같은 존재로 부각되지만 노틀댐 구장에 선수로서 서고 싶었던 그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시합입니다.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루디' '루디'를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은 마지막 11초. 선수들과 관중의 루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드디어 감독으로 하여금 루디를 운동장으로 불러내게 하고 말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의 오랜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중에 그보다 못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꼭 이루어야만 할 꿈을 가지십시오. 루디는 말합니다. "Having dreams is what makes life be tolerant(꿈을 갖는 것은 삶을 견디게 만드는 것이다)". 끝까지 그 꿈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일음처럼 차가운 지성과 자신의 꿈을 관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모여사는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사이보그나 로봇들이 횡행하는 공상세계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들이 꿈꾸는 이상적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는 한가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에게 세가지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인간세계에 살면서 그 해답을 발견하면 그는 다시 하늘나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이 세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천사가 지상에 살면서 찾아낸 처음 두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또 인간사회에서 누구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어디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1992년에 발간되어 지금까지 30주가 넘도록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란 소설이 있습니다. 1993년과 94년의 대부분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일찍 소개되었지요. 이 소설은 두 남녀간의 지극히 단순한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불과 나흘밖에 지속되지 않은 단 한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사랑의 기억은 그들의 심장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각인으로 남습니다. 서로에 대한 갈망이 목숨처럼 용솟음쳐 오지만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언제나 이기적인 만남의 욕망을 극복하고 그 절제는 평생동안 혼자만의 생활을 지켜주는 고귀한 에너지로서 작용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니까?

사랑을 단순히 느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느낌만으로는 안됩니다. 사랑은 한가지 선택이며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사랑의 밑바닥에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비같이 날아가고 시대는 빠르게 바뀝니다. 신입생으로서 첫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어느새 졸업생으로서 마지막 강의를 듣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기성세대를 물아부치는 X세대가 다시금 구세대로 지정되는 날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역사를 보면 신 음악이란 용어가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서너번이나 거듭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또한 "해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문명의 부침이 몇번이나 거듭되었어도 사람은 언제나 이 땅의 주체였으며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 온 것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가운 이성으로써 파악한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설정한 자신의 목표를 '루디'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평

신 철 하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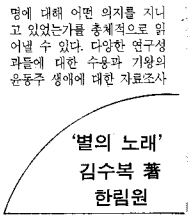
영원한 민족시인 윤동주

시인의 열정 읽을 수 있는 열린 텍스트

윤동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민족시인'의 심상으로 남아있다. 김소월이나 한용운 등을 민족시인로 말하는데 인색함이 없듯, 윤동주의 시와 생애에도 그러한 헌사가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그를 향한 헌사의 뉘앙스는 김소월과도 다르고 한용운과도 다르다. 민족적 시의 숨결(리듬)에 친숙한 김소월의 시들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와 근대적 정서를 혼용하는 맥락을 이어받고 있으며, 한용운의 민족시인에 대한 헌사는 그의 삶과 문학의 일체감에서 더 강조하게 우리를 압도한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 양자의 성격과는 다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죽은뒤 그의 동료 전병숙에 의해 유고시집으로 세상에 소개되었으며, 그가 유학중 불분명한 사유(독립운동과 관계가 있다는)로 일제에 검거되어, 복역중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내력을 가지고 있다. 비극적 생애와 그의 시의 뛰어남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윤동주는 그가 죽은뒤 그를 위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문학의 이름으로 그를 잊지 못하게 한다.

말하자면, 이번에 나온 「별의 노래」는 그러한 윤동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저자의 연구를 바탕으로한, 윤동주 이해의 보고서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이미 윤동주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특히 이러한 유형의 평전이 이전청, 손우해 등에 의해 각기 독특한 문학적 생애를 재구성하고 빛줄하는 일에 바쳐 왔던 것에 비추어 볼때, 그 모든 관심들을 아우르고 있으면서도 저자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이 배어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저자가 이 방면의 깊이 있는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서술을 통하여 윤동주와 그의 문학에 접근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윤동주의 시가 그의 어떤 문학적환경과 집안과 그 개인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교우관계, 윤동주 개인의 내면적 심성, 시에 임하는 태도, 또 유추해서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민족의 운명에 대해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총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다양한 연구성과들에 대한 수용과 기왕의 윤동주 생애에 대한 자료조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윤동주를 읽고 자 하는 교양인들에게나 그를 연구하고자 하는 전공자들에게 모두 참고 삼아야 할 텍스트로 보인다. 이 책은 또한 2부에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거기서 누락되었던 10편의 시들까지를 친절하게 삽입해 놓고 있어 지금까지 발굴되고 논의된 윤동주에 관한 이해의 현재진행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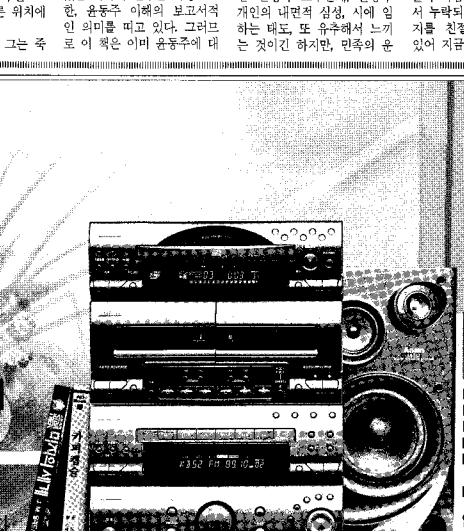
'별의 노래'
김수복 著
한림원

우리는 윤동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는 과연 민족적 저항시인인가? 아니면 소녀 취향의 순수한 동경에 걸맞는 서정시인인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와 그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 책을 통하여 또한번 새롭게 각인된다. 윤동주와 그의 시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열린 텍스트이다.

Anam

미니콤포의 A+
아남「인·엑스 17」

CD 7장을 한꺼번에 넣고 마음대로 골라듣는 7CD 체인저,
100만원대 오디오를 능가하는 100와트 출력,
거기다가 영리한 7가지 AI 인공지능까지—
감각있는 새내기라면 미니콤포도 A+급 아남「인·엑스17」입니다.



국내 최초 7CDG 체인저 채용

■ 입체 서라운드 음향 최대출력 100W
■ 음악감상을 편하게 해주는 7가지 인공지능
■ 방송국명 피일 40채널 디지탈 튜너
■ TV, VTR까지도 조작되는 원-리모콘
■ 테이프 자동복사, CD→테이프 자동 편집녹음
구성모델 : ATA-17/ADC-17/AS-F17
■ 자매모델 : 인·엑스 17G(샴페인 골드색)

인·엑스 17 ₩728,000

ANAM MINI AUDIO SYSTEM X

*구입문의처 : 아남전자 전국대리점 및 서울 2229-600
*고객상담실(클로버서비스) : 080-022-8572(시내외 겸용)